

로마서 묵상 19
(12/26/2020, 토)

찬양: 290(412)(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3:27-31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의 이신칭의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은혜의 보편성, 그리고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더욱 굳게 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오직 믿음의 법으로. 27-28 절 -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 혹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인간은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신칭의의 원리를 한 마디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엡 2:8-9 에서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엡 2:8-9 -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은연 중에 인간의 행위와 공덕을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며,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선행과 공덕은 결코 죄사함을 얻게 하거나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의무로서의 선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의 법. 29-30 절 - 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이시니라.

앞부분에서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와 함께, 한 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징표처럼 여겨지는 할례를 언급하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만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눈이 한 민족, 한 지역, 한 국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 위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

리도 때때로 유대인들과 같은 편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웃 교회, 지역 사회의 교회, 이 나라와 더 나아가 온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만이 아니라 이 땅의 다양한 교파와 교단들도 돌아보고 존중하며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섬기는 교회들도 눈여겨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목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과 국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알고 따뜻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 절 -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제기된 질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 무용론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하며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장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다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며,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키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는 말씀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와 연결지어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며, 자기 자신이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본질을 바르게 실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형식적으로, 행위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자랑과 교만을 내려 놓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도리를 다하십시오.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 중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열린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운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삶에서 진정으로 실천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모든 백성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3. 얼마 남지않은 2020 년을 믿음과 기도 가운데 마무리하며, 보다 깊은 성찰과 회개로 정결함을 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시 19:14).